

광주·전남 선거사범 683명... 흑색선전 '최다'

경찰, 10월까지 수사... 금품수수 등 3대 범죄 집중 고소·고발 후폭풍... 일부 사법리스크 현실화 우려

6·3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선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일부 당선자들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를 선거사건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모든 사건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이전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광주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3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133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95명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포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36명(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26명(19.5%), 공무원 선거관련 7명(5.3%)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한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련 등 3

대 선거범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남에서는 같은 기간 550명의 선거사범이 적발됐다. 이 중 23명은 송치됐고, 468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 역시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257명(46.6%)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98명(17.8%)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선거시설물 훼손 15명, 인쇄물 배부 14명, 선거포스터 10명, 공무원 선거관련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의 흑색선전·금품수수·공무원 선거관련 등 3대 선거범죄는 총 361명으로 전체의 65.6%를 차지했다. 답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4건 적발돼 관련자 1명이 송치됐고, 4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지역 곳곳에서 후보 간 고소·고발전이 이어졌다. 답양군수 선거에서는 금품 제공 의혹과 차명 건설사 운영 의혹이 제기됐고, 신안군수 선거에서는 불법 당원 모집과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해남군수 선거에서는 군청 홍보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순천시장 선거에서는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금품선거 의혹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으며, 교육감 선거에서도 후보들의 과거 카지노 출입 의혹 등을 놓고 고소·고발이 잇따랐다.

지역 정가에서는 선거 이후 수사 결과가 따라 일부 당선자의 사법리스크가 현

실화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실제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목포시장과 영광·곡성·담양·신안군수 등 5명의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직을 상실한 바 있다.

경찰은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당선 답례를 명목으로 한 금품 제공이나 당선 대가성 이권 개입 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 이후에도 금품 제공이나 이권 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19	달림	23:02
맑음	19:43	달림	08:07



광주	맑음	19~25
목포	맑음	19~24
여수	맑음	19~27
순천	맑음	19~27
구례	맑음	18~26
광주	맑음	19~25
신도	맑음	19~26
흑산도	맑음	18~23
진남	맑음	18~27
진도	맑음	18~24

목포	미물(고)	05:09 / 16:59
	샘물(저)	10:29 / 22:17
여수	미물(고)	11:42 / --:--
	샘물(저)	05:57 / 17:39

광주·전남 내륙 아침까지 '비 소식' 5mm 미만... 주말 낮 기온 30도 안팎

5일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광주와 전남 내륙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비가 그친 뒤에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주말까지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9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평년(최저 14~17도·최고 24~29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다음 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낮 동안 지표면이 가열돼 대기가 불

안정해질 경우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 아침 기온은 14~18도로 평년(17~1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고, 낮 기온은 주 초반 23~28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주 후반에는 26~31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주말에는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당분간 고기압 가장자리 또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다"며 "소나기는 지역별 강수량 편차가 큰 만큼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선거 현수막 철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 광주 서구청 도시공간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썬촌동 일대 도로변에서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

광주서 '아이 중심' 공적입양 첫 사례 나왔다

현재 11명 위탁가정서 입양 대기... "관심·참여 필요"

광주지역 입양대상 가정위탁아동이 공적 입양제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됐다.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제도 시행 이후 광주지역 입양대상 가정위탁아동의 첫 입양 결연이 성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결연은 광주지역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입양대상 아동이 평생 함께할 가족을 만나게 된 첫 사례다. 오랜 기간 입양가정을 기다려 온 아동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는데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적 입양제도도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특히 영

유아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영유아기는 안정적인 애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탁가정은 입양 전까지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과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탁부모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며 새로운 가정을 만날 때까지 보호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에서는 이번 결연 아동을 제외한 11명의 입양대상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며 입양가정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아동은 1년 이상 입양가정을 찾지 못한 채 보호를 받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에서 공적 입양제도 개편 이후 첫 결연이 이뤄졌다. 사진제공=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

한편 광주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입양을 기다리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 모집과 교육, 양육 지원, 사례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만취 운전... 시내버스 충돌

만취 운전... 광주의 한 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승객 1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4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시께 광주 서구 화정동 광덕고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가 왼쪽에서 직진 주행 중인 시내버스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아, 사고 당시 시내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다고.

다행히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된 승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를 구가 조치시켰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조사에 나설 방침.

경찰 관계자는 "단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그 한 잔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 분석

국어·영어 쉽게... 수학은 지난해 수준

광주진협·광주진로진학지원 교사 참여 학교 수업·EBS 연계 교재로 대비 가능

4일 실시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영역별 출제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어와 영어는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소속 교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문항 난도는 다소 낮아졌다.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으며 학교 교육과정과

EBS 연계 교재 학습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특히 EBS 연계 체감도가 높고 복잡한 추론이나 신유형 문항이 많지 않아 수험생들의 부담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역시 난도 차이가 크지 않아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독서 영역 13번과 16번, 문학 영역 21번과 24번은 비교적 높은 사고력을 요구해 변별력을 확보한 문항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화법

과 작문' 40번, '언어와 매체' 37번과 39번이 대표적인 변별력 문항으로 꼽혔다. 수학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에서 출제됐다. 전반적으로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했지만 일부 문항은 개념 이해와 논리적 추론 능력을 요구해 수험생 간 체감 난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에서는 15번, 21번, 22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로 평가됐다. 15번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활용한 함수 추론, 21번은 삼차함수와 이차함

수 그래프의 관계 분석, 22번은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규칙성을 파악하는 문항으로 높은 사고력을 요구했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28번, '미적분' 28번, '기하' 28번이 대표적인 변별력 문항으로 분석됐다. 단순 계산보다는 조건 해석과 개념 이해, 문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수학 영역이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충실하면서도 적절한 변별력을 확보했으며 학교 수업과 EBS



출제위원이 트윙클리

연계 교재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영어 영역은 매우 어렵게 출제됐던 지난해 수능에 비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어법·어휘 문항의 난도가 낮아 중하위권 수험생들의 부담은 줄었지만, 빈칸 추

론 33번과 34번, 글의 순서 배열 37번은 상위 변별력을 확보한 문항으로 평가됐다. 특히 34번은 예측 작품 수집가의 심리와 가치 판단을 다른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고난도 문항으로 꼽혔다. 33번 역시 오답 선택지의 매력도가 높아 정답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됐다. 37번은 지시어나 연결어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항 간 논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광주시교육청은 영어 영역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어휘와 문장 구조로 구성됐지만, 일부 추론형 문항을 통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출제 기조가 반영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진수 기자 joinus@gwangnam.co.kr